

재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수법

임채훈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1. 들어가기에 앞서 :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

- 교수법에 있어 정의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하여

- 1)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다.
- 2) 사람은 타고난 호기심은 많아도 호기심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한다.
- 3)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2. 원리에 의한 한국어 교육

1) 인지적 원리

- 자동성 ; 어린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현상, 특히 그 아이들이 그 언어의 문화적, 언어적 환경에 살고 있을 때에 성공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제2언어 학습은 소수의 언어 형태에 대한 통제를 하던 것에서 비교적 무한의 언어 형태에 대한 자동화되고 유창한 처리 과정으로 적시에 옮겨가는 것을 포함한다. 언어를 조직하는 것, 그 형태에 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언어의 규칙에 머무는 것은 모두 이 자동화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
- 유의적 학습 ; 기존의 지식, 경험과 새로운 자료 간에 유의적인 연상을 하는 과정은 낱말의 자료 조각을 분리된 상태로 기계적인 학습을 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장기 기억으로 이끌어준다.
- 보상의 기대 ; 인간은 보편적으로 행동의 결과로 있게 될 어떤 종류의 보상을-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기대함으로써 실행하거나 '행동'하도록 동기를 얻는다.
- 내적 동기 ; 가장 강력한 보상은 학습자 내부에서 내적으로 동기화된 보상이다. 행동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요구, 욕구, 열망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행동 자체가 자기 보상적이다.
- 자율성 ; 성공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하는가 못하는가는 상당 부분, 교실에서 출현하는 자율적인 능력과 교실과 교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2) 사회-정의적 원리

- 언어 자아 ; 제2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휘나 문법이 부족하여 무력한 느낌을 가졌을 때, 비참함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바보가 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 의사소통 의지 ;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믿고, 의사소통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따라서 절대 확신을 하는 수준을 약간 넘는 언어를 표현하거나 해석할 때 기꺼이 모험을 하는 사람이다. 의사소통 의지는 출력과 입력을 생성시킨다.
- 언어와 문화의 연계 ; 언어를 가르칠 때는 언제나 복잡한 체계의 문화적 관습, 가치, 사

고 방식, 감성 양식, 행동 양식도 가르친다.

3) 언어적 원리

- 모국어 효과 ; 학습자의 모국어는 목표어 체계 습득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모국어 체계는 새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촉진 효과와 간섭 효과를 갖지만 간섭 효과가 가장 현저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 중간 언어 ; 제2언어 학습자는 체계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서 목표어의 완전한 능력으로 발전해간다. 성공적인 중간언어 발달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잘 활용한 결과이다.
- 의사소통 능력 ; 언어 교실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한다면, 교사는 그 모든 구성 요소들, 즉 조직적, 화용적, 책략적 그리고 심리 동작적인 구성 요소들을 지향하여야 한다. 의사소통의 목표들은 단지 언어의 용법만이 아니라 사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확성만이 아니라 유창성, 진정성 있는 언어와 맥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교실에서 배운 것을 이전에 연습해본 적이 없는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학생들의 궁극적 요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제외동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수

- 1) 지적발달 ; (11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피아제가 말하는 '구체적 조작기' 단계의 지적 수준이므로 그들의 한계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어에 관한 규칙들, 설명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낮은 수준의 추상적인 이야기들도 매우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어의 기능적인 목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성인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거의 흥미가 없으며 우리가 언어적인 개념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타언어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
- 2) 주의집중 기간 ; 어린 아이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므로 활동들은 그들의 즉각적인 흥미를 이끌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수업은 흥미와 관심이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 3) 감각적 입력 ; 어린이들은 오감을 모두 자극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의 활동은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각과 청각적인 자극을 훨씬 넘어서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정의적 요인들 ; 어린이들의 자아는 아직 형성 중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에서 아주 사소한 느낌의 차이도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교사들은 그와 같은 잠재적 학습 장애요인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진정성 있고 유의미한 언어 ; 어린이들은 새롭게 배우는 이 말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당장 어떤 보람이나 쓸모가 없는 말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 교실이 진정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말로 가득 채워져서는 그 감당을 할 수가 없다.

4. 몇몇 문법 형태에 대하여

- 1) -데, -더라, -더구나, -던데 등

'더-'를 포함하는 '-데, -더라, -더구나, -던데'(이하 '-더라'류) 등은 모두 화자의 감각적 증거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들 종결어미에 선행하는 행위나 상태는 모두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만이 올 수 있다. 다만 후에 기술하는 '-네(요)'가 현재 발화상황에서 목격할 수 있는 행위나 상태를 감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하는 반면, '-더라'류는 현재 발화상황에 없던, 전에 있었던 행위나 상태를 감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위의 종결어미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갖는다. 첫째 화자가 오감을 통해 직접 지각하지 않은, 추측한 내용이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전해들은 내용의 경우에는 이들 종결어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신문을 본 다음 다른 자리에서)

ㄱ. 어제 제주도에 비가 왔어.

ㄴ. #어제 제주도에 비가 오더라.

(1ㄱ)의 경우는 직접 목격한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 사실인지 관계없이 발화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러나 (1ㄴ)의 경우는 화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발화할 수 없는 문장이다. '-더라'를 통해 화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라'류는 반드시 화자가 직접 오감을 통해 지각한 사실인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더라'류 종결어미에는 1인칭 주어의 사용이 제한된다.

(2) ㄱ. *내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

ㄴ. *내가 작더라.

화자의 직접적인 지각 활동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이들 형태가 나타나므로, 직접적인 목적과 같은 지각 활동이 없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각적 증거 관련 어미가 제약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의지를 갖고 하는 행위는 이러한 지각 활동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이들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도 지각 가능한 환경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3) ㄱ.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어제는 식당에서 나도 모르게 급하게 먹더라.

ㄴ. (어제 키를 재보니) 내가 영수보다 작더라.

ㄷ. [내가] 정말 슬프더라.

위에서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3ㄱ)에서처럼, '나도 모르게'와 같이 화자 자신의 의지성이 약화되고,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다고 보는 경우에는 '감각적 지각' 요건을 만족하면서 1인칭 주어를 쓸 수 있다. (3ㄴ)의 경우도 영수와 비교를 통해 화자가 지각한 것이므로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3ㄷ)의 경우는 화자의 내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적 상태, 심리 등을 알 수 있는 대상은 화자 자신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화자 자신 즉 1인칭 주어만 가능하다.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 (4) ㄱ. (물랐는데) 내가 3년 전에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한 번 만났더라.
 ㄴ. 상황을 보니 내일 혼자 가겠더라.

(4ㄱ)의 경우, '-왔/였-'의 결합을 통해 인칭 제약이 해소되었는데, 이는 '-더라'에 선행하는 지각 대상이 실제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명제 내용이기 때문이다. (4ㄱ)은 화자가 3년 전에 동창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는 행위를 지각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실을 선행하는 행위로부터 직접 지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났다는 증거를 댔거나 3년 전 동창회 참석 명단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발견한 경우 '-왔/였더라'의 실현이 가능하다. '-왔/였-'의 기본적 기능은 '완료'이지만, 이때 이것의 실현은 지각 대상을 사건 자체보다는 명제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지각 대상이 사건인 경우에는 행위자 역시 지각 대상에 포함되지만 명제인 경우에는 행위자는 지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왔/였-'의 실현을 통해 행위 자체보다는 명제가 지각의 대상이 되면서 인칭 제약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4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일 혼자 가겠다'라는 명제 내용을 말할 수 있게 한 직접적인 지각 대상은 다른 것이고 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명제가 지각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관련 문법서, 특히 문법 사전에서 밝힌 '-더라'의 의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5) ㄱ. 국립국어원(2005ㄴ:354-356)

; (말할 때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에서)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상대방에게 옮겨 전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내는 어미

- ㄴ. 백봉자(2006:214)

; 화자가 과거 경험을 회상하여 보고함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는 주로 3인칭이다.

위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더라'의 의미 기능은 '화자의 경험' 혹은 '회상' 등이 다. 그러나 '경험', '회상'과 같은 의미가 과연 이들 종결어미가 갖는, 다른 종결어미와 구별되는 의미 기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인지, 더불어 그런 의미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갖는 문법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자.

- (6) ㄱ. 나 어제 롯데월드에서 바이킹 타 봤어.

ㄴ. *나 어제 롯데월드에서 바이킹 타 보더라.

'바이킹을 타 본 것'은 화자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하지만 (6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라'를 사용할 수 없다. 학습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더라'를 사용한다고 가르쳐 주면 실제로 (6ㄴ)과 같은 오류문을 생성한다.

국립국어원(2005ㄴ:354)의 설명에 따라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라'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동일한 문장으로 3인칭을 대체해 봤을 때 (10ㄴ)에 있는 '새로 읽'의 의미가 (6ㄱ)에는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를 통해 문법적 제약과 상관하여 제시해야 할 '-더라'의 의미 기능은 역시 '감각적 지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네(요)

앞서 밝힌 것처럼, '-네(요)'는 현재 발화상황에서 화자가 직접 지각한 행위나 사태라는 증거를 명세하는 양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현재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서 '-더라'류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네' 역시 동일하게 갖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먼저, 화자가 목격하거나 직접 지각한 행위나 상태만이 '-네(요)'에 선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감각적 지각'을 갖고 있지 않은, '-구나'와 용법상의 차이를 갖는다. 다음 예를 보면,

(7) (물이 툭툭 떨어지는,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엄마가)

ㄱ. 밖에 비가 오는구나.

ㄴ. *밖에 비가 오네.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나'의 경우는 화자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에 대해 감각적으로 직접 지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밖에 비가 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도 발화가 가능하다. 반면, '-네(요)'의 경우는 감각적으로 직접 지각한다는 양태성이 어미의 의미 기능 안에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목격이 없는 경우에는 (7ㄴ)처럼 '-네(요)'를 사용할 수 없다.

둘째 1인칭 주어 제약이 존재한다.

(8) 철수가/*내가 도서관 쪽으로 가네.

(8)에서 보는 것처럼 '-네(요)'가 실현된 문장에서 1인칭 행위자 주어는 제약된다. 그러나 이들은 '-더라'가 특정한 환경에서 1인칭 제약이 해소되는 것처럼 제약이 해소될 수 있다.

(9) ㄱ. (시험기간이 되니) 나도 모르게 도서관 쪽으로 가네.

ㄴ. 내가 영수보다 훨씬 크네.

ㄷ. 정말 슬프네.

(9ㄱ)은 화자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이를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보고하는 형식이므로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 (9ㄴ) 역시 비교의 기준에 의해 관찰이 가능한 상황이다. (9ㄷ)은 내적 상태, 심리 등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를 지각할 수 있는 사람은 화자 자신밖에 없다. 이는 '-더라'류와 동일한 제약 현상이다.

주요 한국어 교육 문법서에 나타난 '-네(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0) ㄱ. 국립국어원(2005ㄴ:118)

; 말하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함을 나타내는 어미

ㄴ. 백봉자(2006)

;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들 설명에 나타나는 핵심적 의미는 '감탄', '새로 읽' 등이다. 그러나 '-더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탄', '새로 읽' 등으로는 이들 형태가 갖는 문법적 제약을 잘 설명할 수 없다. '감탄', '새로 읽'이라는 것으로는 1인칭 관련 제약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요)'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새로 읽'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분명히 '-더라'의 경우보다 '-네(요)'가 '새로 읽'과 '감탄'의 의미를 더 강하게 보인다. 이는 '-네'가 '-더라'와 달리 반드시 상승조의 억양을 수반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런 '감탄'과 '새로 읽'의 의미는 '-더라'가 갖지 않는 현장성을 '-네(요)'가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더라'는 직접적인 지각 활동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네(요)'는 지각 활동이 현재 화자가 발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새로이 알게 된 것, 감탄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감탄'이나 '새로 읽'보다 '감각적 증거'로 '-네'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갖는 이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종래 한국어 교육 문법서나 교육 현장에서 '-네(요)'와 '-더라'를 상관시켜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더라'와 '-네'가 문법적 제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관성을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더불어 후에 제시하는 연결어미에서도 '감각적 증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러 상관관계의 어미들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이점이 많다.

3) -길래

'-길래'¹⁾ 역시 감각적 증거 양태를 포함하고 있는 연결어미이다.

(11) {내가/(*)너가/그가} 일찍 오길래 {내가/*너가/*그가} 이유를 물었다.²⁾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길래'는 일반적으로 선행절의 주어는 3인칭, 후행절의 주어는 1인칭이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우선 선행절의 주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제약된다. 물론 이들도 화자가 사건의 지각이 용이할 경우, 인칭 제약의 해소가 가능하다.

(12) ㄱ. 심심하길래, TV를 틀어 보았다.

ㄴ. 그 소식을 듣고 좀 슬프길래, 술 한 잔 먹은 거야.

(12)의 경우, '심심하다', '슬프다' 등은 경험자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동사인데, 이러한 내적

1)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길래'는 '-기에'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출현 빈도나 쓰임에 있어 '-기에'와 '-길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안주호(1998)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에'와 '-길래'가 그 용법과 제약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길래'의 독자적 지위를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이에 동의하고 '-기에'와 '-길래'를 다른 연결어미로 처리한다. 특히 '감각적 증거'를 나타내는 어미류가 구어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길래'가 구어적 쓰임만이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1) ㄱ. 영희가 돈 걱정을 많이 하기에/*하길래 (영희의) 얼굴이 상했다.

ㄴ. 나는 너희를 믿기에/*믿길래 (나는) 다른 말 안 했지.

2) 선행절에 2인칭이 오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2인칭 청자와 화자의 발화상황 속에 문장이 표상하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해 청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만 2인칭 선행절 주어가 가능하다.

상태를 지각 가능한 사람은 오직 화자이므로 선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은 해소되는 것이다. 오경진(2003:385-386)에서는 '-길래'에 대해 선행절 주어가 보통 2, 3인칭이며 후행절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프길래 약을 먹었어요."와 같은 용례를 들어, 이 문장은 선행절의 '실제 주어'가 1인칭이지만 '표면상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러한 인칭 제약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의미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학습자가 '-길래'의 의미 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장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또한 '-았/었-'과 '-길래'의 결합을 통해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되는 것도 동일하다.

(19) ㄱ. 뭘 먹었길래/*먹길래 이렇게 배가 아프지.

ㄴ. (내가) 너무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길래/*도착하길래 서점에 가 봤어.

(19)에서 보는 것처럼 '-았/었-'과의 결합을 통해 선행절의 1인칭 주어 제약이 해소된다. 앞서 밝힌 바대로, '-았/었-'의 결합은 행위 자체에 대한 지각이기보다는 명제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에 행위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이 아니므로 인칭 제약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